

## 1. 합격 정보

1 차 시험 점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법	민집법, 상업등기법	부등법, 공탁법
	56	70	64	68
2 차 시험 점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사건서류	부등법, 등기신청서류
	43	51.5	69.25	59.75

## 2. 합격자 학습 정보

1차 시험 응시 횟수	( 2 ) 회
2차 시험 응시 횟수	( 2 ) 회
총 수험 기간	( 36 ) 개월
1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학원
2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학원 + 스터디
법무사단기 수강 이력 여부	있음

## 3. 합격 후기

- [ ] 주제1.

1. 저는 수험공부를 시작하기 전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단 한번도 공부를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매장업무는 저랑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의 좋은 동료들을 만나 저도 제 미래를 찾아 더 발전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막연하게 동경해오던 법조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법무사라는 직업이 가장 멋지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법무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여 합격까지 **총 3년**이 걸렸습니다.

2021년 1차에 떨어지고 다시 1차만 집중하여 2022년에 1차를 합격, 2023년에 2차 합격하였습니다.

- [ ] 주제2.

저는 수험기간 내내 제일 중요시 했던것은 복습이었습니다. 무조건 복습 위주로 공부계획을 짰습니다. **1차의 경우 많은 양을 다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비법대생으로써 한번 복습하는 것만으로는 제 것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매일 수업의 진도만큼을 무조건 두번을 정독하였습니다. 민법은 양도 많지만 내용도 어렵고 까다로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두번을 완벽하게 정독했습니다. 그 외의 양이 많은 과목들은 두번 읽되, 두번째에는 키워드 및 목차 위주로 읽으면서 떠올리는 형식으로 읽었습니다.

복습만큼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1차에서는 체력을 잘 비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복습을 꼼꼼히 하되 복습이 끝나면 그 이상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또한, 주말중에 수업이 없는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수험공부는 단기 레이스가 아닌 장기 레이스이므로 마라톤과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너무 전력을 다하기보단 빠지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는 주관식 시험이므로 그 무엇보다 수업을 통해 배운것을 직접 써보는 연습이 가장 필요하고, 교수님의 첨삭 및 피드백을 토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는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를 처음으로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직접 답안지를 작성한다는것은 엄청나게 큰 부담이지만, 민법 및 민사소송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효근 교수님이 강의 첫 시간부터 답안지 작성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주기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작성방법은 결론과 이유, 넘버링의 방식으로 크게 복잡하지않기때문에, 목차 잡기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목차에 대한 압박감이 없어진다면 내용적인 면, 즉 판례 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1순환과 2순환에서는 시험보는 파트를 알려주시고 그 범위 내에서 시험을 보기때문에 모르는 것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으므로, 위에서 배운 작성방법을 토대로 모의고사 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마시고 빠짐없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는 양이 많은것은 아니지만 판례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여야 하므로 1차와 같이 복습을 완벽하게 하는것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복습을 다 해야한다는 강박감과 당장 내일 모의고사를 봐야하는 압박감에 공부방법을 찾는데 오래걸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복습을 완벽하게 하는것을 포기하고 모의고사 시험범위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 범위내의 사례들을 완벽하게 외울때까지 봤습니다. 사례 해설의 구조순서까지 외울 정도로 완벽하게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문제가 나오면 책이랑 완벽하게 똑같이 쓴다는 마음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모의고사를 본다는 것은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파트이거나 시험문제로 찍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 판례들은 다 외우게 되는것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외워서 쓰는것이 많이 버겁습니다만, 반복하여 연습하다보면 중요한 판례들은 겹치기도하고 외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또한, 같은것을 암기하여 써도 나만의 스타일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2차는 마음이 맞는 수험생끼리 스터디를 하는것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는 연습양이 많은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외의 기출연습과 사건서류 및 신청서류 작성을 혼자서 연습하는것은 강제성이 없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수험생과 같이 규칙적으로 날을 정하고 시간을 재서 답안을 작성하고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도 보는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달라 서로가 배울 수 있습니다.

- [ ] 주제3.

## 민법/민사소송법

민법은 가장 양이 방대하고 점수 배점도 가장 높으며 또한 가장 까다로운 과목입니다. 당연히 절대적으로 제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1순환부터 모의고사외에 법무사 기출 10개년치와 법원행시 및 법원사무관승진 최근 3개년 기출문제는 스터디

원들과 따로 답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기출문제들은 시간을 재지 않고 매주 50점짜리 한 문제를 정해서 해당 파트를 공부하여서 작성했습니다. 민법을 이 정도 써보시면 답안작성에도 자신감이 생기실것입니다.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로 법무사 기출 10개년치를 민법과 같이 매주 50점짜리 하나, 20점 짜리 문제들 두개 40점 문제 하나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사실상 민사법이 사건서류를 포함하여 200점인만큼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것이 민사법을 이만큼 연습하게되면 답안 작성에 대해서는 저절로 요령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게 될 것 입니다.

민사법은 박효근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꼼꼼한 판서와 판례의 해석으로 너무나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항상 정성을 다해서 첨삭해주셔서 답안작성의 요령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형법/형사소송법

2차 모든 과목이 판례의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것이지만 형사법은 유난히 핵심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민사법과 같이 판례가 길지도 않고 문장으로 키워드를 대체할 수 있는 민사법과는 달라 핵심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해당 판례를 썼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셔야하고 문장이 유려하지 않더라도 키워드만 쓰셔도 됩니다. 형사법의 고득점 요소는 키워드 중심입니다.

또한, 법 조문을 잘 활용해주셔야 합니다. 형법의 경우 조문에 해당 범죄의 요건들이 명시되어있으므로 조문을 이용하여 요건 및 요건에 따른 판례를 실시하고 사안의 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판례 자체가 조문해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과목보다가 조문을 가장 많이 실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문안의 준용되는 조문을 타고 들어가는 방식이 많습니다. 따라서, 조문의 해석과 조문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합니다.

형법은 김민준 교수님, 형사소송법은 최철훈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의 1대1 첨삭으로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항상 열정있는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작성

1차 때 부터 사실상 가장 낯설고 암기의 양이 많고 실무적으로 느껴져 어렵고 고민이 많은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등기법은 조문이 잘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조문을 잘 이용하면 암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을 잘 익히시고 해당 파트를 잘 찾아갈 수 있게 된다면 암기의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1차 때 부터 해오던 과목이라 조문을 보신다면 내용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다만, 목차 위주의 암기는 필요했습니다. 서술하라와 같은 논술식

의 문제가 많기때문에 큰 목차들을 외워야했고, 목차를 암기하신다면 목차에 따른 내용은 암기가 어렵지 않으실겁니다.

등기신청서류작성의 경우 연습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당일 수업한 사례들을 한번 읽어본 뒤, 등기신청서류의 폼을 준비하여 모든 사례들을 써봤습니다. 날짜와 부동산표시, 신청내용, 신청정보, 첨부서류, 제목, 당사자 등 세세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기때문에 꼭 직접 써보셔야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읽고 쓰시면 누락되는 부분을 많이 줄이실 수는 있지만, 써본 뒤 틀린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자주 빠뜨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것이 헷갈렸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및 등기신청서류작성은 오영관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항상 열정적이고 준비된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첨삭도 꼼꼼히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민사사건서류작성

민사사건서류작성의 경우는 청구취지를 잘 익히는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취지의 경우 생각보다 한 글자 하나하나 똑같이 쓰는것이 중요합니다. ‘각’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 의미도 달라지므로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써서 암기하여야합니다. 암기뿐만 아니라 직접 청구취지를 쓰면서 공부하셔야 등기신청서류와 마찬가지로 어디가 부족하고 헷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직접 쓰면서 외우는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박효근 교수님께서 사건서류는 40개는 써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게 쓰기 시작하여 스티디원끼리 40개를 쓰기엔 너무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연습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 사건서류 교수님께 모의고사를 늘려달라고 부탁드렸고 감사히도 교수님께서 흔쾌히 저희 의견을 반영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순환에는 하루에 네번 모의고사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서류는 내용적인 부분은 민법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민법이 뒷받침 돼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못지않게 전체적인 형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배점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연습이 중요한 것 입니다. 많이 써볼수록 형식적인 부분은 갖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의고사때부터 결국 시험 때 까지 계산 부분이 틀려 청구취지를 틀렸습니다. 하지만 20점의 점수를 받음으로써 부족한 부분의 점수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즉, 사건서류작성은 많이 쓰신다면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과목이므로 꼭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사건서류작성은 김지안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항상 성의있고 정성과 진심을 담은 첨삭 덕분에 용기를 얻고 쓸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도 너무 감사합니다!

- [ ] 주제4.

시기별 공부는 그 무엇보다도 학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강생의 경우 학원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차 수업은 모의고사가 매주, 3순환에는 매일 있기 때문에 시험을 빠지지 않고 봐야합니다. 혼자서 써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저도 해봤습니다만,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매일 빠지지 않고 출석하여 시험을 보시고 교수님의 첨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라도 순환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비순환 때에는 낯선 과목들로 당황스럽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때 부터 답안작성 연습을 하시는것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때에는 모의고사 횟수가 적으므로 너무 부담 갖지마시고 모의고사를 보시는것으로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가 기본 이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때이므로 놓치지 않고 이 때만큼은 복습을 하시며 기본 이론을 충분히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1순환과 2순환에는 모의고사를 보게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과목들은 교수님들께서 모의고사 시험범위를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보는 범위의 판례라도 다 외우신다는 생각으로 공부 하시길 바랍니다.

3순환때에는 시험장과 같이 낯선 문제를 모의고사때 맞닥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이 때에는 앞서 서술하신대로 공부해오셨다면 답이 틀리시거나 논점이탈을 하시더라도 뭐라도 쓰실 수 있게 되셨을겁니다. 저는 3순환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에 모르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차는 정말로 시간이 부족하므로 시간분배도 잘 생각하셔야하기에 이와 같은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만, 3순환을 끝까지 버티시고 나면 어떤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대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감은 시험장에서 빛을 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순환에서는 내가 결론을 맞추고 판례를 잘 쓴 경우에도 꼭 다시 봐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잘 안다고 생각하여 다시 보지 않으면 정작 시험장에서 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순환에는 복습을 잘 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에는 특강들을 모두 챙겨들으시며 최신판례들을 채우셔야합니다. 3순환까지 끝마치시면 기존의 중요 판례들은 많이 암기하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법무사 시험의 특성상 최신 판례들은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특강등을 이용하여 최신판례를 꼭 익혀두셔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엔 최신판례만 열심히 암기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최신판례는 기존 중요 판례보다 낫설기에 마지막에 암기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 [ ] 주제5.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체력관리를 제일 중요시 했습니다. 꼭 쉬는시간과 쉬는 날을 확보하도록 노력했고, 가끔은 영화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첫 번째로 체력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보고싶은 영화나 먹고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내가 할 일을 끝내고 보거나 먹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한 나를 위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스스로의 보상을 위하여 공부할 때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끝내고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의 확보를 위해서 두번째로는 자투리 시간을 정말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는 파주에서 서울대입구로 매일 빠짐 없이 통학하였으므로 지하철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여 저는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책을 분권하여 들고 다니기 쉽게 만들어 지하철에서 서서 오갈때에는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틈틈히 책을 봤습니다. 즉, 교통시간을 제일 활용을 많이했습니다.

그 외에도 머리 말리는 시간에도 책을봤고, 주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할때는 페이지수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보자 라는 마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또한, 체력관리 및 체중관리를 위해 실내싸이클을 탔습니다. 실내싸이클을 애용한 이유중에 하나는 운동을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느껴져 자꾸 미루어왔습니다만, 실내싸이클을 타며 책을 볼 수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주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공부가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2차 공부를 할 때에는 정말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었고 쉬는 날·쉬는 시간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하게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컸던 것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과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다독여주며 이끌어준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혼자 외로움과 싸우며 최선을 다 하시는것도 좋지만 길고 긴 나와의 싸움이기에 혼자 이겨내시기엔 힘드실 때도 있으실겁니다. 그럴때에 주위를 둘러보시고 같은 공부를 하시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 서로 자극도 받고 위로도 받으시며 공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만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겁니다. 공부하시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버티면 된다는 마음으로 꼭 휴식시간도 가지시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마치겠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